학부모단체 육성회로 통합

서울교육청 初中高 지시 지역住民 참여도 권장

운동회 일요일 실시 권장

올해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각종 학부모단체들이 육성회로 일원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일선학교육성회조직및 활동개선지침」을 확정, 그동안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청소년단체운영위원회 학교발전위원회등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학부모단체들을 정비, 기존의 육성회로 통합하도록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이 지침에서 육성회의 회원은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사회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높이기 위해 △운동회를 일요일에 개최하는 방안 △운동장 강당등을 주민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 실시토록하라고 일선학교에 권장사항으로 시달했다.

산업폐기물 野山매립

업자등 2명 영장 관련업체 조사

【水原】京畿道지방경찰청은 (주)선경 두산농산 진로등 대기업에서 처리를 위탁한 특정폐기물을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한 金奉市(51·평창동산대표·京畿水原시八達구牛滿동550의9)孫彬씨(41·운수업·서울東大門구新設동114의57)등 2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등 위반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91년5월 식물성고형물을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겠다며 京畿華城군 鄕南면壇旨리산4의1 야산에 비닐하우스공장을 지은뒤 (주)선경등 14개업체에서 나온 슬러지등 산업폐기물 1만6천4백여t을 이일대 3천여평에 불법으로 매립, 5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孫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없이 강원7아3182호등 4대의 9t트럭으로 평창동산을 비롯, 재생테크일월물산등 불법폐기물업체의 산업폐기물 4천3백t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또(주)선경 오뚜기식품 두산농산 해태유업 진로 서울식품 미원베스트등 14개업체들이 무허가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처리를 위탁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東亞꿈나무 장학금

朴孃實씨 2百萬원

◇朴산부인과원장 朴孃實씨(서울中구苧동)는 지난22일「東亞꿈나무」에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백만원을 東亞꿈나무재단에 기탁했다. 朴씨가「東亞꿈나무」에 장학금을 기탁해온것은 지난80년 이후 이번이 일곱번째다.

수석졸업

△성결교신학대=신학과 南상춘씨(40) 4·5점만점에 4·39점.

△숭실대=영어영문학과 李鄕姬양(24) 4·5점만점에 4·22점.

"田씨 朴대통령 연락심부름"

古下암살 韓賢宇씨 기자회견

古下 암살자인 韓賢宇씨(75)가 최근 자신의 처지와 사건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東京聯合>

【東京=李洛淵】金泳三차기대통령의 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자신과 장인의 과거문제로 자진사퇴한 田炳旼씨(46)의 장인이며 古下 宋鎭禹선생 암살범의 한 사람이었던 韓賢宇씨(75)는 22일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東京의 新亞通信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진촬영에도 응했다.

60대초반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만큼 건강한 韓씨는 이날 회견에서 시종 크게 웃어가며 자신이 李承晩 朴正熙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받고 田씨와만나게된 경위등을 설명했다.

"사위도 자식인데…「사퇴」유감"

—田씨가 마침내 자진사퇴했는데….

『사위도 자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차라리 그런 출세(정책수석비서관내정)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田씨가 사퇴하기 전에는「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사람(田씨)에게 미안하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했는데』

—어떻게 중죄를 저지르고도 석방돼서 6·25중이던 50년12월에는 일본에까지 올 수 있었는가.

『李承晩박사 시절에 나이외의 4명(공범자)은 모두 가석방됐다. 나만 痲浦형무소에 남아 있는데 6·25가 났다.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감옥에서 그냥 나오려다가 나만 붙잡혔다. 그러나 인민군은 나를 재조사해보더니「동무야말로 해방투사」라며 풀어주었다. 金山임시정부 시절에 야당의 蘇선규 徐이환 의원이「韓賢宇가 金山거리를 활보하는데 왜 붙잡지 않느냐」고 따지자 李淳鎔내무장관이「벌써 일본에 가버렸다」고 답변했다. 나는 이것이 일본으로 가란는 신호라고 생각, 일본에 건너왔다』

—李承晩정권이 그만큼 배려했다면 古下암살도 李정권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가.

『사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李박사의 마음에 들었겠지. 金九선생도 마음에 들어했을 것이다』

—5·16에 관한 책을 써 朴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온후 그와의 관계는….

『그때 나는 다른 몇사람과함께 요정에서 朴대통령과 만나「유엔군을 절대 주둔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그후 나는 몇차례 서울에 갔는데 그때마다 田이 朴대통령의 메신저보이(연락심부름을 하는 사람)로서 서울의 우리집에 오곤 했었다. 내가 서울에 가지않을때도 田은 朴대통령의 심부름으로 집에 들렀다. 그래서 서울의 가족과 친척들은「대통령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중요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같고 그러다(딸과) 만나게 된 것같다. 79년 朴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田은 東京대학에 유학중이었는데 그때 東京의 우리집에 몇번 놀러왔었다. 그러나 그때는(딸과) 결혼하기 전이었다』